



2만달러 시대를 여는 지식정보산업의 구심점

정부 CIO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그리고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CIO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들 한다.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는 지식정보산업 육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리고 정부 조직구조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혁할 수 있는 틀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위해 CIO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것. 다산네트웍스 남민우 대표에게 '지식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CIO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자.



글 /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대표)

“ 우리에게는 기존의 먹이사슬 구조를 과감하게 탈피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정책방향의 합의를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키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 지식정보산업이야말로 우리가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

우 리나라가 오늘날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게 된 데는 6~70년대부터 의욕적으로 전개해온 정부의 각종 산업화정책과 이에 부응한 선배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다.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정책과 이후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된 중화학공업 중시정책은 지금의 경제를 이뤄낸 주요정책이다. 즉, 섬유에서 선박, 자동차 그리고 메모리용 반도체로 이어지는 제조업 중심 비즈니스와 과감한 위험감수(Risk Taking)전략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는 발전·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런 패러다임의 지속이 과연 ‘2만달러 시대’로의 도약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최근 정부를 중심으로 각계에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답을 지식정보산업에서 찾고 있다.

전세계가 주목하는 허울 좋은 인터넷강국?

지식정보산업은 주로 IT산업과 인터넷으로 이야기된다. 정부 유관 부처들은 우리나라가 인터넷강국이라고 자부한다. 우리나라의 IT산업과 인터넷은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인프라와 환경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재 우리경제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그저 인터넷 소비강국일 뿐이며, 이대로 지속된다면 중국에게 곧 주도권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실상 우리 IT산업은 기존 산업처럼 대량설비에 의한 단순 부가가치 창출형인 제조업의 연장선상에 머무르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 장비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강국’이라는 허울 좋은 자리에 안주하려 하다가는 머지않아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지도 모른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각계 각처의 분분한 의견들

한편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 IT산업의 사활이 걸려 있다며 정부의 주도적 정책을 요구하고 있고, 또다른 한편에서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 있겠느냐며 체념하고 있다. 이렇게 각계의 입장차가 분분하지만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각계 각처에서 고부가가치형의 지식정보산업으로 진화, 발전하기 위한 여러 대안과 고

민들을 쏟아내고 있다. 분산된 여러 기관과 위원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서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데이터를 제시하기 때문에 진의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부에는 적절한 정책을, 산업계에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지식정보산업의 구심점, 강력한 CIO가 필요하다

만일 정부의 정책과 업계 사정에 해박한 힘있는 정부 CIO가 우리나라 IT산업 전반의 중심에 서 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고 싶다.

첫째, 정부가 각종 통신사업권 인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다시 그 돈을 각종 산업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가? 그리고 이 막대한 기금을 정부의 잣대로 기업체에 나눠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둘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기관이 지식정보산업의 소비시장으로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많은 기업들이 개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저가에 납품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처는 없는 것인가? 빌 게이츠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했더라면 망했을 거라는 자조 섞인 기업인들의 하소연에 대해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답은 없는가?

셋째, 정부기금의 직접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국내업체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국산장비를 제값 주고 구매해주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는 없는가?

물론 지금 이 순간도 각종 모임과 위원회에서 여러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관계자들 또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만으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도출하기는 어렵다. 우리에게서 기존의 먹이사슬 구조를 과감하게 탈피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정책방향의 합의를 정확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키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심점으로서 정부의 강력한 CIO가 필요하다. 지식정보산업이야말로 우리가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한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